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이수연 (Soo Yeon Lee)**

이용정 (Yong Jeong Yi)***

초 록

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에게도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인 정보조직 활동과 정보유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593부의 유효한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management is increasing for individuals. The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motivations or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ffect college students. First, the motivation and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For this purpose,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and a total of 593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The study found that the motivations or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fluenc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The study extends the liter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of individuals and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such behavior. Furthermore, the finding of the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it is essential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manage personal information efficiently.

키워드: 개인정보관리, 정보관리,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보존, 대학생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data curation,
digital preservation, college student

*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soylee2020@naver.com)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redpapa01@skku.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자: 2020년 3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21일

■ 정보관리학회지, 37(1), 107-126,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107>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매일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인쇄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저장되어 손쉽게 훼손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커져 장기적 보존이 취약하다(안영희, 박옥화, 2010).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징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적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국내·외의 정부와 기관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곽승진, 최재황, 배경재, 정영미, 2011; 김슬기, 2015).

디지털 정보의 관리는 정부나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왔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이미지, 동영상,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생산 및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양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방대한 정보량의 증가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 2017). 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시에 적합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존 방법이 있는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정보를 손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개인의 정보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므로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존하여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재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김슬기, 201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인의 과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유지, 검색, 이용, 그리고 통제하는 개인정보관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IM)가 학문적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Jones, 2008).

개인정보관리와 가장 밀접한 집단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 대학생들로서 스마트 기기를 삶의 필수품으로 여기며 여러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며(노영희, 2014), 이들에게 개인정보관리는 매우 일상적이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학업 및 연구, 쇼핑이나 경제, 생활정보, 문화나 레저정보, 뉴스, 건강 등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이러한 정보를 미래에도 재사용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또한,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다루므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관리 습관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Cushing & Dumbleton, 2017; Huvila, Eriksen, Häusner, & Jansson, 2014; Robinson & Johnson, 2012).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보 수집, 저장, 조직, 유지, 그리고 차후 검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관리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집단의 개인들이 관리하는 정보 형태나 정보관리 도구 및 방법, 개인정

보관리의 동기, 개인정보관리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관찰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관리 행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양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에도, 북마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특정 정보관리 도구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민지연, 2009; 이정호, 2015)가 이루어졌으나, 개인의 정보관리 방법이나 정보관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관찰하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정보조직 활동과 정보유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는 어떠한가?
-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은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관리(PIM)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모, 친구, 직원과 같은 역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 저장, 조직, 유지, 검색, 이용 및 배포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이론 및 실체다(Jones, 2008, p. 5). 즉, 개인정보관리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미래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다.

개인들은 대량의 정보를 컴퓨터, 핸드폰, 이메일,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정보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들이 소유하는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보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러 개의 정보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다 보니 분산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축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Majid, Chang, Foo, Mokhtar, Theng, & Zhang, 2013). 이에 따라 개인들이 생산, 저장, 이용하는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가 중요해졌다.

Jones(2008)는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정보 찾기 활동(Finding activities), 정보 저장하기 활동(Keeping activities), 메타 수준의 활동(Meta-level activities)의 세 가지의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 찾기 활동은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정보 찾기 활동은 정보 찾기(finding)와 정보를 다시 찾기(re-finding)로 구분된다. 정보 찾기는 웹에서 검색 질의나 브라우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고, 정보 다시 찾기는 이전에 수집, 저장한 정보를 다시 찾는 활동이다(Jones, 2008). 정보 다시 찾기는 정보의 소장 여부, 저장 위치, 저장된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정보 저장과 관련이 있다(Majid et al., 2013). 둘째, 정보 저장하기 활동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저장하는 활동으로 발견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필요한 정보라면 즉시 사용하고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면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할 때는 저장해 놓은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 결정, 저장 이유, 저장된 정보의 유용성, 저장하지 않았을 때 따른 결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Majid et al., 2013). 이러한 점에서 정보 저장하기는 단순히 정보 저장(saving)의 의미가 아닌 정보를 조직하고 유지하여 미래에 다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단계이다. 셋째, 메타 수준 활동은 정보 저장하기와 정보 찾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보 조직하기(organizing)와 정보 유지하기(maintaining)로 구성된다. 정보 조직하기는 저장한 정보를 배치, 분류하고 이름을 지정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정보 유지하기는 오래된 정보를 업데이트, 백업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Jones, 2008). 정보 조직하기와 정보 저장하기는 유사해 보이지만 정보 조직하기는 저장된 정보를 분류하고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 수준의 활동은 정보를 찾거나 다시 찾는 것을 돕기도 하면서 방해하기도 한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유지한다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정보조직 체계가 복잡하거나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Oh, 2013).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 교사, 교수, 전문가, 근로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는데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개인정보관리 과정에 따라 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개인정보관리 과정 중 정보 찾기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과정에서 책이나 노트, 일기 등의 인쇄 정보와 이메일, 이러닝에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사진 및 오디오와 같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zrachi & Bates, 2013; Robinson & Johnson, 2012; Świgoń, 2014). 그리고 대학생들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Świgoń, 2014).

정보 저장하기 측면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목적은 미래에 필요할 때 재이용하기 위해서이다(Bruce, 2005).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미래에 유용한 정보일 수 있기에 저장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은 인쇄 형태보다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로는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 기기, USB,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메일, 소셜 미디어, 서지관리시스템, 공유 드라이브, 북마크를 이용하고 있었다(민지연, 2009; Cushing & Dumbleton, 2017; Diekema & Olsen, 2014; 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Mizrachi & Bates, 2013; Otopah & Dadzie, 2013). 정보 저장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북마크나 즐겨찾기 추가하기, 자신에게 이메일 보내기, 내용을 인쇄물로 출력해서 보관하기, 공유 드라이브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URL이나 내용을 복사해서 문서에 붙여 넣기가 있었다(Bruce, Jones, & Dumais, 2004; Huvila et al., 2014; 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Otopah &

Dadzie, 2013).

저장한 정보는 나중에 다시 이용할 때 쉽게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Robinson과 Johnson(2012)은 관련성이 있는 정보끼리 분류하는 개인들도 있지만, 전혀 정리나 관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개인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학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폴더를 이용하였고 폴더 내에서는 정보의 중요도순, 문서 유형, 이름순, 날짜순으로 조직화하였다(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개인의 정보 분류 행태를 분석한 Oh(2017)의 연구에서 개인들은 구조화하여 관리, 특별한 규칙 없이 하나의 장소에 보관해 관리, 사용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해 관리하는 특징을 보였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미래에도 재이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인들은 정보를 습관적으로 보존하는 특징이 있고, 나중에 참고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장기 보존한다(Mizrachi & Bates, 2013). 개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정보 보존 방법은 백업이었다. 백업이 디지털 정보의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n, Kim, & Syn, 2017). Cushing과 Dumbleton(2017)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백업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였

다. 이외에 출력물로 보존하거나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John, Rowland, Williams, & Dean, 2010).

마지막으로 정보 다시 찾기와 관련해서 개인들은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저장해 놓은 정보를 다시 찾기 위해 브라우징을 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파일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 et al., 2010; Otopah & Dadzie, 201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집하여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다루고자 한다. 개인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책이나 노트, 일기 등의 인쇄 정보와 이메일,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사진, 오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가 포함된다(Mizrachi & Bates, 2013; Robinson & Johnson, 2012; Świgoń, 2014). 개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나 성격은 다르지만, 개인이 다루는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정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여 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학업은 물론 취미나 일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다고 볼 수 있다(권나현 외, 2013; Mizrachi & Bate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대학생들이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관리 도구에 저장하거나 다루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2.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및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을 토대로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개인정보관리 행태는 Jones(2008)이 제시한 개인정보관리 활동 중 메타 수준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2.2.1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들은 단순히 현재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저장해서 관리하고자 한다. 정보를 저장하기 전에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되면 저장한다(Jones, 2008).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이 미래에 재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학생들 또한 나중에 다시 찾거나 참고하기 쉽게 학업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한다(Mizrachi & Bates, 2013). 미래에 다시 찾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재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

<표 1> 변인별 정의 및 선행연구

개념	변인	정의	선행연구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도 정도	Copeland(2011) Finneran(2010)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개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인 개인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 정도	Kaye et al.(2006) Sinn, Kim, & Syn(2017)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정보관리 도구의 발전으로 정보관리가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Copeland(2011) Sinn, Kim, & Syn(2017)
	기억효능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는 자신감 정도	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2017)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정보기술 불안감	정보기술 활용에 관해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김슬기(2015) Copeland(2011) Cushing & Dumbleton(2017) Sinn, Kim, & Syn(2017)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정보의 가치를 결정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Sinn, Kim, & Syn(2017)
	정보 분산 정도	정보가 여러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에 분산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2017)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정보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Sinn, Kim, & Syn(2017)
개인정보관리 행태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저장한 개인정보를 분류 및 이름을 지정하는 활동 정도	김슬기(2015) John et al.(2010) Oh(2017)
	정보유지 활동 정도	개인정보를 유지 및 보존을 위해 정보를 백업, 복사본 생성 및 인쇄본으로 출력, 삭제하는 활동 정도	김슬기(2015) Cushing & Dumbleton(2017) Sinn, Kim, & Syn(2017) Świgoń(2014)

보의 미래이용 정도를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도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peland(2011), Finneran(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개인은 본인의 정보를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개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물이라 여기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삶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가치관이 담겨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김슬기, 2015).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개인정보를 개인의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한다(Kaye, Vertesi, Avery, Dafoe, David, Onaga, & Pinch,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를 개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인 개인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고 Kaye et al.(2006),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개인이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가 발전하면서 개인들은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과거보다 쉽게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관리 도구가 다양해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대량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관리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슬기, 2015). 이렇게 개인들은 과거보다 정보관리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신속

하게 찾고자 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나 정보관리 도구의 검색 성능이 향상되었고 개인들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정보를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Sinn, Kim, & Syn, 2017). 이러한 점에서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를 정보관리 도구의 발전으로 정보관리가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peland(2011),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 기억효능감

저장해놓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대량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기억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정보관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였다(Majid et al., 2013). 기억력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개인들은 체계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기억효능감을 개인정보관리의 동기 요인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저장해 놓은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는 자신감 정도로 정의하였고, Otopah와 Dadzie(2013), Sinn, Kim, Syn(2017)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다.

2.2.2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 정보기술 불안감

정보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이나 기록관과 같은 전문기관은 정보의 유형이 체계적이고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 지원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개인은 많지 않으며 개인마다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선호하는 정보기술도 다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Otopah & Dadzie, 2013). 장기적인 보존에 적합한 파일 포맷이나 백업 소프트웨어의 선택과 같은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개인정보관리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기술 불안감을 정보기술 활용에 관해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정보기술 불안감을 개인정보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 개인들은 미래에 이용하거나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나중에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Sinn, Kim, & Syn, 2017).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할 때까지 해당 정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정보가 축적되고 정보요구가 있을 때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미래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나중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를 정보의 가치를 결정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다.

• 정보 분산 정도

여러 위치에 분산된 정보는 개인정보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개인들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관리 도구를 사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관리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가 여러 장소에 흩어졌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임시로 여러 위치에 저장해두고 있다(Marshall, 2008). 또한, 개인들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시키고자 사본을 만들어 여러 장소에 저장해두면서 정보의 분산이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가 분산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보 분산을 개인정보관리의 방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분산 정도를 여러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에 분산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Otopah와 Dadzie(2013),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분산 정도의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다.

•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인쇄 정보보다 디지털 정보의 축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정보관리 도구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생산하는 정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Marshall, Bly, & Brun-Cottan, 2006).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정보관리 도구에 축적되고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정보량보다 빠르게 축적되었다(Sinn, Kim, & Syn, 2017). 정보의 축적 속도는 개인정보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를 정보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져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토대로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2.2.3 개인정보관리 행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여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보조직 활동은 저장한 정보의 분류와 조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이다(Jones, 2008). 개인마다 저장한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다른 특징이 있다(Oh, 2017). 본 연구에서는 김슬기(2015), John et al.(2010), Oh(2017)의 연구에서 분석된 개인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 행태 및 파일 이름을 짓는 행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의 측정항목으로 삼았다. 정보유지 활동 정도는 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활동이다. 장기적인 정보유지를 위해 백업이나 다른 위치로 이동, 복사,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의 정보관리 보존 활동인 백업, 복사본 생성, 인쇄본 출력, 삭제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로 정보를 유지하는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3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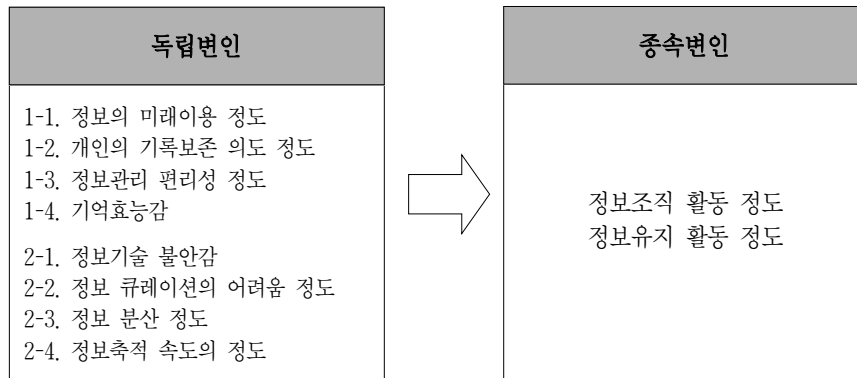
2.3.1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기억 효능감)은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기억 효능감)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3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정보기술 불안감,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정보 분산 정도,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은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4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정보기술 불안감,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정보 분산 정도,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Power) 0.8로 설정하여 표본 수를 계산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09명이었다. 설문은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총 673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 문항에 똑같은 번호로 무성의하게 응답한 80부 응답지를 제외한 뒤, 총 593부의 응답지를 최종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323명(323명(54.5%), 여성이 270명(45.5%)으로 여성보

다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년별 분포는 석사과정이 214명(3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학교 1학년이 148명(25.0%), 박사과정이 61명(10.3%), 대학교 3학년 60명(10.1%), 대학교 4학년 57명(9.6%), 대학교 2학년이 53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의학계열이 256명(43.2%), 사회과학계열이 169명(28.5%), 자연과학계열이 77명(13.0%), 인문계열이 72명(12.1%), 예체능계열이 19명(3.2%) 순으로 나타났다.

3.2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및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그리고 중속변인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설문 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공의 일반적인 사항과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사용하는 정보관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323	54.5
	여	270	45.5
합계		593	100.0
학년	대학교 1학년	148	25.0
	대학교 2학년	53	8.9
	대학교 3학년	60	10.1
	대학교 4학년	57	9.6
	석사과정	214	36.1
	박사과정	61	10.3
합계		593	100.0
전공분야	인문계열	72	12.1
	사회과학계열	169	28.5
	자연과학계열	77	13.0
	공학/의학계열	256	43.2
	예체능계열	19	3.2
합계		593	100.0

리 도구 및 방법, 정보관리 주기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정보관리 도구, 정보관리 방법, 정보관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측정 항목의 정확성과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는지 나타내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각 변인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리 동기와 방해 요인, 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을 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개인정보관리 행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정보관리 도구, 정보관리 방법, 정보관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들이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다중응답)는 문서가 572명(46.2%), 사진이 402명(32.5%), 동영상 155명(12.5%), 오디오가 99명(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실험데이터, 소스코드, 프로그램 코드, 소프트웨어 파일, 온라인 계정, 도면 파일 등이 있었다.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를 묻는 설문(다중응답)에서는 학업 및 연구정보가 550명(31.8%)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정보가 276명(15.9%), 여행정보가 153명(8.8%), 쇼핑 정보가 148명(8.5%), 음식정보가 140명(8.1%), 지도가 99명(5.7%), 금융 및 경제정보가 95명(5.5%), 뉴스가 90명(5.2%), 날씨정보가 63명(3.6%), 건강정보가 52명(3.0%), 교통정보가 51명(2.9%)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에는 업무정보, 게임 및 스포츠 정보, 개인관련 정보, 취미정보, 애완동물 정보, 연예인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정보관리에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다중응답)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545명(25.2%),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가 441명(20.4%), 클라우드 서비스가 323명(14.9%), USB가 298명(13.8%), 이메일이 232명(10.7%), 외장하드가 168명(7.8%), 블로그 또는 소셜 미디어가 163명(6.3%), 서지관리프로그램(Refworks, Endnote 등)이 20명(0.9%)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다중응답)에 대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저장하는 방법이 473명(2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저장하는 방법이 328명(18.8%), 자신에게 이메일로 URL이나 파일을 첨부해 보내는 방법이 296명(17.0%), 북마크 및 즐겨찾기에 추가하기가 267명(15.3%), 개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에 URL로 링크를 보내거나 내용을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225명(12.9%), 내용이나 URL을 복사해서 문서에 붙여넣기가 128명(7.3%), 종이에 출력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27명(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방법으로는 기타 정보관리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서지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관리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인인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정렬하는 방법으로는 파일명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243명(41.0%), 날짜순으로 196명(33.1%), 중요도 순이 47명(7.9%), 파일의 형태 순이 46명(7.8%), 나열 순이 35명(5.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그룹화하는 방법, 사용 용도, 사용 빈도, 파일의 연관성, 주제별, 학기별로 정렬하거나 정렬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파일을 다시 찾는 방법은 저장해 놓은 파일의 위치를 기억해서 찾는 방법이 247명(41.7%),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찾는 방법이 147명(24.8%), 파일의 이름을 기억해서 찾는 방법이 83명(14.0%), 파일의 속성(저장 날짜, 유형, 크기 등)을 사용해 검색하는 방법이 65명(11.0%), 원하는 파일을 찾을 때까지 폴더를 열어보는 방법이 51명(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정리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월1회 이상 정리하는 응답자가 23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1회 이상이 209명(35.2%), 부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응답자와 정리를 하지 않는 응답자도 있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백업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연1회 이상이 349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백업하지 않는 응답자가 47명(7.9%), 자동으로 백업하는 응답자가 7명(1.2%)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타당성 파악을 위해 요인분석에서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를 사용해 분석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 분산 정도 변인의 2개 문항이 잘못 적재되었다. 해당 문항을 제거한 뒤 재분석한 결과 모

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을 넘겨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 값이 0.806으로 0.5 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3930.502(df=153, p=.000)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변인(0.449)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립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독립변인	요인							공통성	신뢰도
	1	2	3	4	5	6	7		
정보기술 불안감 2	.859	.088	.077	-.020	.029	-.090	-.011	.761	.878
정보기술 불안감 1	.845	.136	.115	-.043	-.003	-.058	-.048	.754	
정보기술 불안감 3	.806	.128	.157	-.118	.128	.033	-.055	.725	
정보기술 불안감 4	.805	.027	.105	-.011	.186	-.016	-.030	.696	
정보기술 불안감 5	.707	.077	-.050	.064	.175	-.099	-.083	.560	
기억효능감 2	.149	.861	.106	-.045	.110	-.111	.030	.802	.794
기억효능감 1	.052	.838	.092	-.054	.054	-.058	-.056	.726	
기억효능감 3	.162	.741	.140	.089	.152	-.043	-.067	.633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1	.171	.143	.880	.033	.125	-.014	-.033	.841	.813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2	.121	.189	.851	.061	.200	-.002	.009	.818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2	-.029	.019	.058	.899	.044	.104	.070	.830	.771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1	-.054	-.033	.024	.853	.002	.230	.112	.798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2	.169	.198	.119	.106	.816	-.038	.005	.760	.683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1	.228	.105	.213	-.058	.805	-.017	-.020	.761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1	-.080	-.161	-.025	.107	-.083	.822	.097	.737	.63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	-.084	-.029	.011	.224	.033	.807	.136	.728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1	-.084	-.072	.131	.051	.041	.036	.846	.750	.449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2	-.071	-.008	-.178	.131	-.062	.212	.720	.621	
고유값	3.456	2.182	1.707	1.669	1.506	1.478	1.302		
분산설명력	19.198	31.322	40.807	50.080	58.446	66.659	73.891		
KMO 측도								.8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930.502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 변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정보유지 활동 정도 변인의 3개 문항에서 공통성이 0.4이하로 나타났고, 정보조직 활동 정도 변인의 4개 문항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 해당 문항을 제거한 후 재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2개 요인으로 재추출되었다. KMO값이 0.574로 0.5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983.789(df=15, p=.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6이상으로 나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6개 요인과 종속변인 2개 요인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가설 1.1의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만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설명력은 1.8%로 낮게 나타났다.

<표 4> 종속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종속변인	요인		공통성	신뢰도	
	1	2			
정보조직 활동 정도 7	.935	.025	.764	.775	
정보조직 활동 정도 5	.873	.034	.440		
정보조직 활동 정도 6	.661	.064	.875		
정보유지 활동 정도 1	.019	.793	.630	.612	
정보유지 활동 정도 4	.172	.742	.517		
정보유지 활동 정도 2	-.048	.717	.580		
고유값	2.105	35.086			
분산설명력	35.086	63.421			
KMO 측도				.5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83.789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5> 가설 1.1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2.043 F value= 11.741 유의확률(p)= .001** R-Square = .019
Adj R-Sq= .018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1.907	.284			6.711	.00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35	.069	.140		3.426	.001**	1.000	1.000

**p<0.01

가설 1.2의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와 개인의 기록보존 의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설명력은 7.9%로 낮게 나타났다.

가설 2.1의 검증 결과, <표 7>과 같이 정보처리 속도의 정도와 정보기술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설

명력은 3.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설 2.2의 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정보기술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설명력은 5.8%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가설검증 결과 요약은 <표 9>와 같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개인정보관리의

<표 6> 가설 1.2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 1.966 F value = 26.371 유의확률(p) = .000*** R-Square = .082
Adj R-Sq = .079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1.385	.249		5.566	.000***		
개인의 기록 보존 의도 정도	.175	.043	.174	4.097	.000***	.862	1.16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51	.062	.172	4.044	.000***	.862	1.160

*** $p < 0.001$

<표 7> 가설 2.1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 2.096 F value = 13.022 유의확률(p) = .000*** R-Square = .042
Adj R-Sq = .039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2.855	.144			.000		
정보처리 속도의 정도	.186	.044	.180	4.269	.000***	.916	1.091
정보기술 불안감	-.196	.050	-.165	-3.911	.000***	.916	1.091

*** $p < 0.001$

<표 8> 가설 2.2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 1.894 F value = 37.400 유의확률(p) = .000*** R-Square = .060
Adj R-Sq = .058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3.679	.104		35.204	.000***		
정보기술 불안감	-.252	.041	-.244	-6.116	.000***	1.000	1.000

*** $p < 0.001$

〈표 9〉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 설	독립변인	종속변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채택 여부
가설 1.1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채택
가설 1.2		정보유지 활동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채택
가설 2.1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정보기술 불안감	채택
가설 2.2		정보유지 활동 정도	정보기술 불안감	채택

방해 요인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관리의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정보관리 행태 변인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종속변인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는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에서는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보기술 불안감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인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는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의 변인인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와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가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에서는 정보기술 불안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의 변인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와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인 정보기술 불안감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미래에도 이용하기 위해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이 낮거나 개인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가 클수록 정보관리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도서관이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정보 기술의 활용도와 접근도가 높은 도심지역의 대학생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대학생 간에는 정보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낮은 지역 대학생의 정보관리행태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낮게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외에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인이 있음에도 이를 분석대상으로 반영하지 못하

여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통 요인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인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 외에 정보 공유, 정보손실 방지, 개인의 만족감이나 성취감, 기술적 문제 등이 정보관리의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라고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관리 행태의 변인을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

도의 두 개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하위 변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변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외된 문항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유지 활동 정도를 백업 활동, 복사본을 만드는 활동, 인쇄본으로 출력해 보존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각 세부 변인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위 변인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면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 이외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관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고 있으므로, 교사나 연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연구한다면 집단별로 개인정보관리 행태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최재황, 배경재, 정영미 (2011). 과학기술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아카이빙 정책 연구. 정보관리연구, 42(4), 115-136. <https://doi.org/10.1633/JIM.2011.42.4.115>
-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69-295. <https://dx.doi.org/10.3743/KOSIM.2013.30.2.269>
- 김슬기 (2015).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P대학 학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노영희 (2014).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Y세대 이용자의 요구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29-63. <https://dx.doi.org/10.3743/KOSIM.2014.31.3.029>

- 민지연 (2009). 웹 정보 수집 관리 도구로써의 북마크 이용행태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안영희, 박옥화 (2010). 디지털 큐레이션 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167-186. <https://dx.doi.org/10.16981/kliss.41.1.201003.167>
- 이정호 (2015). 국내 대학생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Bruce, H. (2005). Personal, anticipated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0(3). Retrieved from <http://InformationR.net/ir/10-3/paper232.html>
- Bruce, H., Jones, W., & Dumais, S. (2004). Keeping and re-finding information on the web: What do people do and what do they need?.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1(1), 129-137. <https://doi.org/10.1002/meet.1450410115>
- Copeland, A. J. (2011). Analysis of public library users' digital preservation practice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7), 1288-1300. <https://dx.doi.org/10.1002/asi.21553>
- Cushing, A. L., & Dumbleton, O. (2017). 'We have to make an effort with it': Exploring the use of stages to help understand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nee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octoral students managing dissertation information. *IFLA Journal*, 43(1), 40-50. <https://dx.doi.org/10.1177/0340035216686983>
- Diekema, A. R., & Olsen, M. W. (2014). Teache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IM) practices: Finding, keeping, and re-finding inform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5(11), 2261-2277. <https://dx.doi.org/10.1002/asi.23117>
- Finneran, C. M. (2010). Factors that influence users to keep and leave information items: A case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USA.
- Huvila, I., Eriksen, J., Häusner, E. M., & Jansson, I. M. (2014). Continuum thinking and the context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9(1). Retrieved from <http://www.informationr.net/ir/19-1/paper604.html>
- John, J. L., Rowland, I., Williams, P., & Dean, K. (2010). *Digital lives: Personal digital archives for the 21st century, an initial synthesis*. Version 0.2, London, UK: British Library. Retrieved from <http://britishlibrary.typepad.co.uk/files/digital-lives-synthesis02-1.pdf>
- Jones, W. (2008). *Keeping found things found: The study and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 management. Amsterdam, Boston: Morgan Kaufmann Publishers.
- Kaye, J. J., Vertesi, J., Avery, S., Dafoe, A., David, S., Onaga, L., & Pinch, T. (2006). To have and to hold: Exploring the personal archive.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75-284. <https://doi.org/10.1145/1124772.1124814>
- Krtalić, M., Marčetić, H., & Mičunović, M. (2016). Personal digital information archiving among students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21(2).
Retrieved from <http://www.informationr.net/ir/21-2/paper716.html>
- Majid, S., Chang, Y. K., Foo, S., Mokhtar, I. A., Theng, Y. L., & Zhang, X. (2013). Strengthen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ies through incorporat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kills. In: Kurbanoglu S., Grassian E., Mizrachi D., Catts R., & Špiranec S. (Eds), *Worldwide Commonalities and Challenges in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ECIL 2013.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397, (pp. 331-337). Cham: Springer.
- Marshall, C. C. (2008). Rethinking personal digital archiving part I: Four challenges from the field. *D-Lib Magazine*, 14(3/4). <https://dx.doi.org/10.1045/march2008-marshall-pt1>
- Marshall, C. C., Bly, S., & Brun-Cottan, F. (2006). The long term fate of our personal digital belongings: Toward a service model for personal archives. *Archiving Conference*, 2006(1), 25-30. Retrieved from <https://arxiv.org/abs/0704.3653>
- Mizrachi, D., & Bates, M. J. (2013). Undergraduates' personal academ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consideration of time and task-urgenc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8), 1590-1607. <https://doi.org/10.1002/asi.22849>
- Oh, K. E. (2013). *The process of organizing personal in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Graduate School-New Brunswick, New Brunswick, NJ, USA.
- Oh, K. E. (2017).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categorization: Rigid, fuzzy, and flexibl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6), 1491-1504. <https://dx.doi.org/10.1002/asi.23787>
- Otopah, F. O., & Dadzie, P. (2013).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of stud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library services. *Aslib Proceedings*, 65(2), 143-160. <https://dx.doi.org/10.1108/00012531311313970>
- Robinson, S., & Johnson, F. (2012). The process and affective environment of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nhancing Learning in the Social Sciences*, 4(2), 1-13. <https://dx.doi.org/10.11120/elss.2012.04020005>
- Sinn, D. H., Kim, S., & Syn, S. Y. (2017). Personal digital archiving: Influencing factors and

challenges to practices. *Library Hi Tech*, 35(2), 222-239.

<https://dx.doi.org/10.1108/LHT-09-2016-0103>

Świgoń, M. (2014). Pers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ur in the light of the comparative studies among Polish and German students. *Proceedings of ISIC: the Information Behaviour Conference, Leeds, 2-5 September, 2014: Part 1*. Retrieved from <http://www.informationr.net/ir/19-4/isic/isic17.html>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hn, Young Hee, & Park, Ok Wha (2010).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digital curation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167-186.

<https://dx.doi.org/10.16981/kliss.41.1.201003.167>

Kim, Seul Gi (2015). A study on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preservation of digital personal archives: with P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Master of Arts program*. Pusan National University.

Kwak, Seung Jin, Choi, Jae Hwang, Bae, Kyung Jae, & Jung, Young Mi (2011). A study on the policy on digital contents archiving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4), 115-136. <https://doi.org/10.1633/JIM.2011.42.4.115>

Kwon, Na Hyun, Lee, Jung Yeoun, Chung, Eun Kyung, Chang, Gil Soo, & Yoon, Hye Jin (2013).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veryday lif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69-295.

<https://dx.doi.org/10.3743/KOSIM.2013.30.2.269>

Lee, Jung Ho (201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ersonal cloud service use intention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ster of Arts program*. Sungkyunkwan University.

Min, Ji Yeon (2009). Using behavior and function of bookmark as a web information management t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ster of Arts program*. Yonsei University.

Noh, Young Hee (2014). A study analyzing Y generation users' needs for next generation digital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9-63. <https://dx.doi.org/10.3743/KOSIM.2014.31.3.029>